삼양엔씨켐 (482630)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
직전 목표주가	-원
현재주가 (12/03)	23,70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594억원
총발행주식수	10,944,14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31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47,634주
52주 고/저	28,750원 / 15,190원
외인지분율	0.05%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삼양홀딩스 외 11 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18.9	54.4	0.0
상대	16.6	32.0	0.0
절대 (달러환산)	15.7	46.4	0.0

주목해야 하는 3가지 요인

삼양엔씨켐은 반도체용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2008년 3월 엔씨켐으로 설립, 2021년 12월 삼양홀딩스로 최대주주 변경, 2024년 10월 삼양엔씨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삼양홀딩스가 59.97%로 최대주주이다. 2025년 2월에는 코스닥 상장되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의 포토레지스트용 소재인 고분자(폴리머, Polymer)와 PAG(광산발산제),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중 PERR(Post Etch Residue Remover) 중간체가 주요 제품이다.

주목해야 하는 요인

첫째, 반도체 업황 개선이다. 당사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반도체 업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효율화와 기술전환이 맞물리면서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구조적 레벨업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1H26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해 나갈 것이며, 2H26에는 하이퍼스케일러/엔터프라이즈의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출하량 증가가 외형 성장을 재차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망이다.

둘째, 일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 규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반도체 제조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국내와 일본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증가는 실적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예상된다.

셋째, 포토레지스트 매출처 다변화이다. 2가지의 영향이다. ①기존 진출한 고객사에서 다른 품목으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이다. KrF PR 소재를 시작으로 ArF PR, EUV PR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ArF PR와 EUV PR에 적용되는 폴리머와 PAG는 KrF PR의 폴리머와 PAG 대비 가격 및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②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 확대이다. 일본 기업들이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함이며, PR의 소재 특성상 폴리머와 PAG의 공급이 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폴리머와 PAG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별도)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717	953	986	1,105
영업이익	-56	23	74	107
지배순이익	-54	9	47	90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60.2	4.4	2.7	1.7
ROE	-12.0	1.5	6.5	11.3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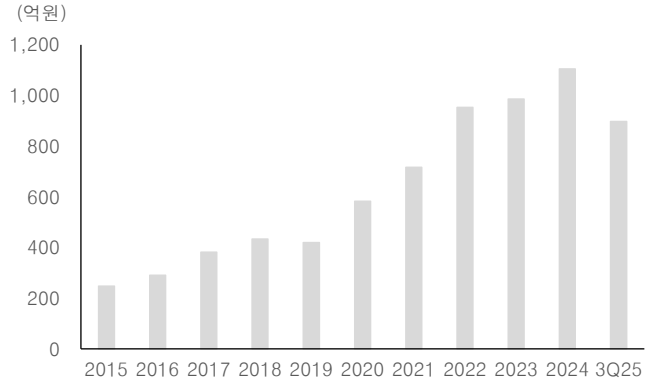
기업개요

삼양엔씨켐은 반도체용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2008년 3월 엔씨켐으로 설립, 2021년 12월 삼양홀딩스로 최대주주 변경, 2024년 10월 삼양엔씨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삼양홀딩스가 59.97%로 최대주주이다. 2025년 2월에는 코스닥 상장되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의 포토레지스트용 소재인 고분자(폴리머, Polymer)와 PAG(광산발산제),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중 PERR(Post Etch Residue Remover) 중간체가 주요 제품이다. 향후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EUV PR용 소재 및 HBM용 Bump 폴리머, 유리기판용 PR 소재 등 하이엔드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 및 고객사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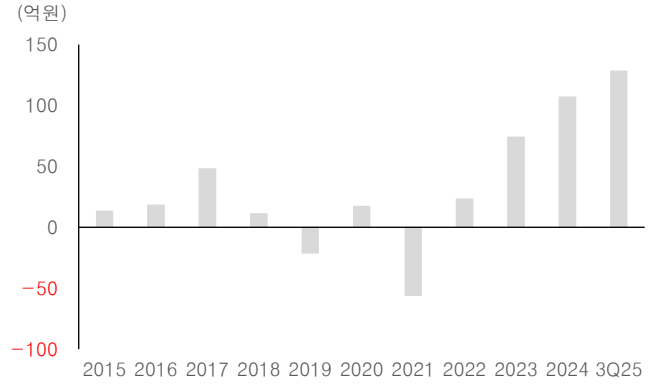
매출액은 2019년을 제외하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매출액 247억원에서 2024년 1,105억원으로 연평균 9.6%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2015년 13억원에서 2024년 107억원으로 연평균 26.4% 증가했다. 3Q25 매출액은 897.9억원, 영업이익 128.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 60.3% 개선되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4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트 1] 연도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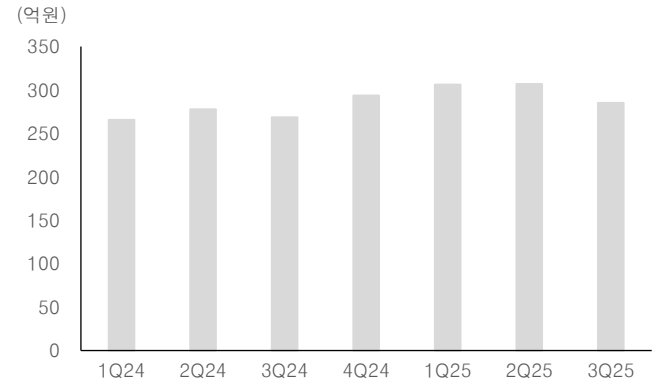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2]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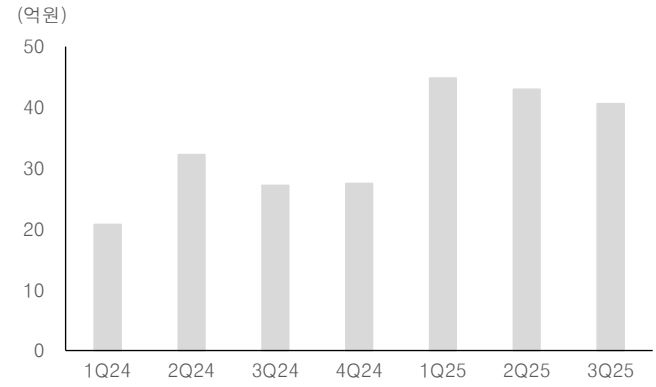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3]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4]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폴리머 & PAG(광산발사제)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액의 일종이다. 감광은 빛을 받았을 때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통칭한다. 빛이 닿은 부분 또는 닿지 않은 부분만 남기 때문에 특정 패턴을 형상화할 수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하게 도포된다. 위에 반도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놓고 그 아래에 빛을 모아주는 렌즈를 위치, 웨이퍼를 향해 빛을 쏘면 마스크에 그려져 있던 회로 패턴이 웨이퍼에 남게 된다. 즉,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다.

포토레지스트는 필요에 따라 빛을 받은 부분이 용해되어 사라지는 양성(Positive)형과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용해되어 사라지는 음성(Negative)형으로 구분된다. 광원의 파장에 따라 I-line(365nm), KrF(248nm), ArF(193nm), EUV(13.5nm)로 나눠진다. 선 폭이 좁을수록 미세회로를 그릴 수 있다.

[그림 1] 포지티브 VS. 네거티브 포토레지스



자료: SK 에코플랜트,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광원에 따른 포토레지스트 구분



자료: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포토레지스트(PR)은 고분자(폴리머), 광산발산제(PAG), 첨가제, 용매로 구성된다. 고분자는 도포 후 필름을 형성하게 하는 기본 성분으로 노광공정 및 후속공정 진행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결정한다. 접착성, 저항성을 가지는 기계적 특성을 가진 재료이다. 포토레지스트의 뼈대 역할이다.

PAG 는 노광에 이용하는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감광제를 사용해야 하며 빛의 반응하여 포토레지스트가 현상액에 대한 용해 특성을 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패턴의 해상도 향상에 기여하는 소재이다. 첨가제는 도포특성, 현상특성 및 포토레지스트의 미세 성능개선을 위해 첨가되는 화합물이다. 용매는 포토레지스트의 각 성분들을 녹여 용액상태로 만들어 도포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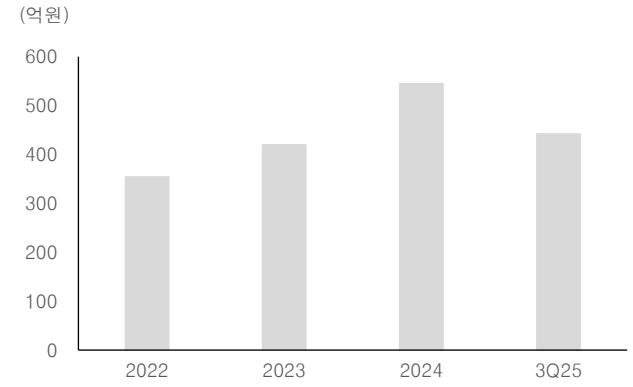
동사는 포토레지스트의 구성 요소인 폴리머와 PAG 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국산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TOK(日), 스미토모(日), Dupont(美), 동우화인켐, 동진쎄미켐, SKMP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KrF PR, ArF PR, EUV PR, Bump PR, BARC 등을 공급하고 있다. KrF PR 내 폴리머를 납품하는 공급사는 4곳이며, PAG 는 2개사가 있다. ArF PR 에서는 폴리머와 PAG 를 각각 1개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EUV PR 의 고객사는 폴리머 1개, PAG 는 2개사이다. 이외에도 고객사와 개발 중인 품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즉, 국내와 해외 기업 모두에 공급하고 있으며, 폴리머와 PAG 를 공급하고 있으며, KrF-ArF-EUV 를 모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포토레지스트 제조기업들은 국내에 생산설비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현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한국 반도체 제조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일본 포토레지스트 생산설비가 건설되고 가동되면 포토레지스트에 사용되는 폴리머, PAG 등의 소재에 대해서는 한국산 소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사의 소재를 납품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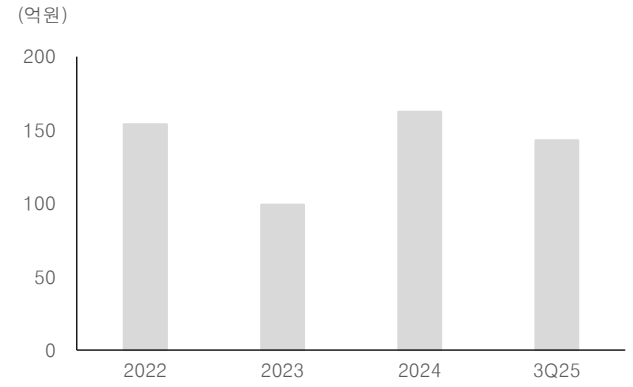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TSV용 HBM3 Bump PR용 재료 개발과 유리기판 PR용 소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차트 5]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수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6]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내수 매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HF), 불화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23년 3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해제되었다.

당시 3개 품목의 일본 수입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생산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규제 사태 이후 국내기업들의 R&D 를 확대했으며, 정책적인 지원도 이뤄졌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다. 참고로 HF 는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이엔에프테크놀로지에서, PI 는 코오롱인더와 PI 첨단소재가 국산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올해 11월 중순부터 중국향 PR 출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정치적 이슈와 더불어 중국 반도체 기업(CXMT, SMIC 등)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되고 있다. PR 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로 인해 중국 반도체 제조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국내와 일본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증가는 실적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예상된다. 국내 PR 기업이 만약 중국으로 수출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국내 PR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동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Wet Chemical 소재: PERR 중간체

동사는 식각 후 PR 찌꺼기를 제거하는 PERR(Post Etch Residue Remover)용 중간체도 제조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Q25 누적 기준으로는 26.9%이다.

PERR은 반도체 식각 후 웨이퍼에 남는 다양한 잔류물(폴리머, 금속, 산화물, 레지스트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에칭 과정에서 기판의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약품이나 플라즈마가 남긴 잔여물은 반도체의 성능과 품질에 영향을 준다.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PERR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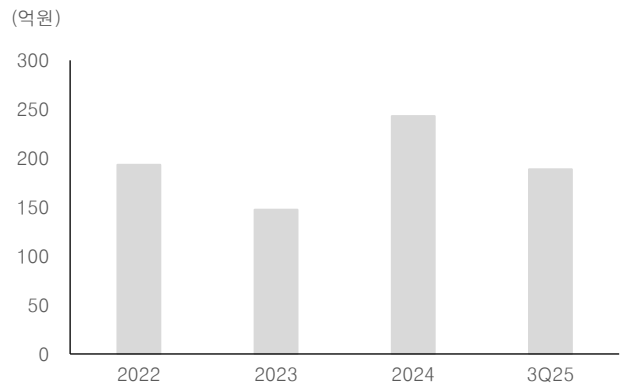
Verified Market Reports에 따르면 PERR은 2024년 12억달러에서 2033년 25억달러로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 요인은 칩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량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급 세정 솔루션에 대한 수요확대이다.

수용성 PERR은 친환경적이고 극성 잔류물 제거에 효과적이며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용매 기반 PERR은 유기 잔류물 제거에 우수하지만 환경오염 이슈가 존재한다.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PERR은 주로 유기용제+아민계+킬레이트제+부식억제제로 구성된다. 각각이 중간체 형태로 준비되어 조합된다. 이후 농도/점도/순도를 조절하여 최종 PERR 완제품이 제조된다. 아민계 중간체는 고분자 식각 부산물을 분해하는 핵심 성분이다. 킬레이트 중간체는 금속 복합제를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용매 중간체는 고분자 잔사를 녹이며, 아민계&킬레이트가 작동하도록 확산 채널을 형성한다. 부식 억제제 중간체는 금속 배선 식각 방지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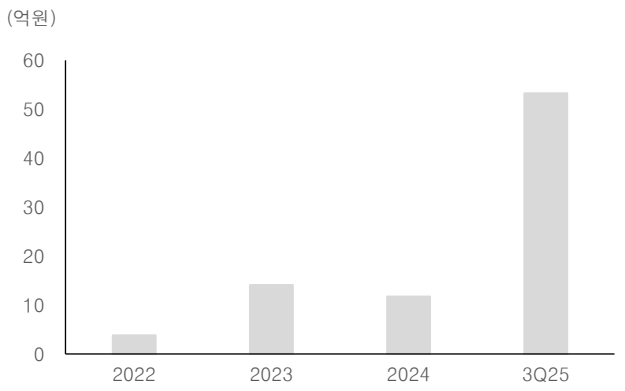
PERR 중간체가 중요한 이유는 미세패턴 잔사 제거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PERR의 품질이 중간체 설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트 7] Wet ChemicaL 내수 매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8] Wet ChemicaL 수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목해야 하는 요인

주목받을 수 있는 다수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업황 개선이다. 당사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반도체 업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효율화와 기술전환이 맞물리면서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구조적 레벨업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1H26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해 나갈 것이며, 2H26에는 하이퍼스케일러/엔터프라이즈의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출하량 증가가 외형 성장을 재차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망이다.

둘째, 일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 규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반도체 제조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국내와 일본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증가는 실적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예상된다.

셋째, 포토레지스트 매출처 다변화이다. 2가지의 영향이다. ①기존 진출한 고객사에서 다른 품목으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이다. KrF PR 소재를 시작으로 ArF PR, EUV PR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ArF PR 와 EUV PR 에 적용되는 폴리머와 PAG 는 KrF PR 의 폴리머와 PAG 대비 가격 및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②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 확대이다. 일본 기업들이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함이며, PR 의 소재 특성상 폴리머와 PAG 의 공급이 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폴리머와 PAG 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반도체 소재 및 원료 기업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 아쉽지만, ArF PR, EUV PR 로의 적용처 확대 및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2024년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2026년에 더욱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양엔씨켐 (482630) 추정재무제표 (K-IFRS 별도)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582**	**717**	**953**	**986**	**1,105**
매출원가	482	677	824	819	881
매출총이익	100	40	130	167	225
판관비	83	96	106	93	117
영업이익	**17**	**-56**	**23**	**74**	**107**
EBITDA	83	6	113	133	164
영업외손익	-11	-18	-15	-23	-15
외환관련손익	-2	2	3	1	8
이자손익	-8	-18	-18	-25	-19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2	-2	0	0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6	-74	8	50	92
법인세비용	0	-19	-1	4	2
계속사업순손익	6	-54	9	47	90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	-54	9	47	90
지배지분순이익	**6**	**-54**	**9**	**47**	**90**
포괄순이익	0	0	9	47	89
지배지분포괄이익	0	0	9	47	89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영업활동 현금흐름	**-8**	**-51**	**20**	**155**	**144**
당기순이익	6	-54	9	47	90
감가상각비	64	60	88	58	54
외환손익	0	0	1	0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73	-140	-96	30	-20
기타현금흐름	-5	84	18	20	22
투자활동 현금흐름	**-150**	**-157**	**-37**	**-22**	**-54**
투자자산	0	0	0	0	0
유형자산 증가 (CAPEX)	-133	-159	-42	-15	-58
유형자산 감소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17	1	5	-8	4
재무활동 현금흐름	**195**	**116**	**61**	**-80**	**-152**
단기차입금	-3	0	100	17	-99
사채 및 장기차입금	179	51	-36	-93	-48
자본	0	58	0	0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19	7	-2	-3	-5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0	0	1
현금의 증감	**36**	**-92**	**44**	**53**	**-61**
기초 현금	71	107	15	59	112
기말 현금	107	15	59	112	51
NOPLAT	**17**	**-56**	**25**	**74**	**107**
FCF	**-123**	**-293**	**-24**	**148**	**87**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유동자산	**486**	**481**	**559**	**578**	**528**
현금및현금성자산	106	10	57	109	5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0	114	86	97	140
재고자산	299	307	413	367	335
비유동자산	410	498	769	736	754
유형자산	396	464	605	571	588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4	2	2	3	0
자산총계	**896**	**979**	**1,329**	**1,314**	**1,283**
유동부채	204	288	425	415	34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3	79	62	80	101
단기차입금	108	108	253	280	181
유동성장기부채	42	97	103	48	52
비유동부채	283	195	202	151	99
장기차입금	199	195	197	149	97
사채	84	0	0	0	0
부채총계	**487**	**482**	**628**	**566**	**446**
지배지분	410	496	701	747	836
자본금	13	15	16	16	48
자본잉여금	329	477	625	625	593
이익잉여금	191	165	217	264	353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410**	**496**	**701**	**747**	**836**
순차입금	**307**	**370**	**501**	**365**	**279**
총차입금	433	400	559	478	331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EPS	97	-860	92	483	925
BPS	6,586	5,727	7,231	7,708	8,624
EBITDAPS	133	10	120	138	169
SPS	936	1,123	1,010	1,017	1,140
DPS	0	0	0	0	0
PER	**0.0**	**0.0**	**0.0**	**0.0**	**0.0**
PBR	**0.0**	**0.0**	**0.0**	**0.0**	**0.0**
EV/EBITDA	**3.7**	**60.2**	**4.4**	**2.7**	**1.7**
PSR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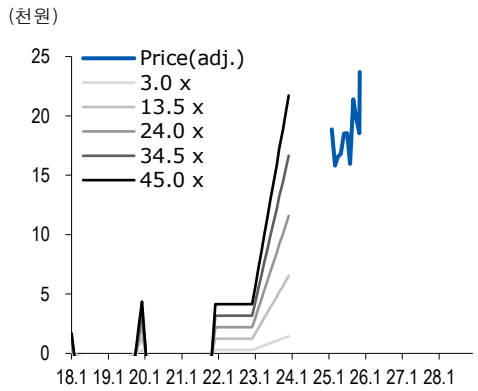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증가율 (%)	**38.7**	**23.1**	**33.0**	**3.4**	**12.1**
영업이익 증가율 (%)	**흑전**	**적전**	**흑전**	**218.3**	**45.9**
지배순이익 증가율 (%)	**흑전**	**적전**	**흑전**	**438.2**	**91.6**
매출총이익률 (%)	17.2	5.6	13.6	16.9	20.3
영업이익률 (%)	**3.0**	**-7.8**	**2.4**	**7.5**	**9.7**
지배순이익률 (%)	1.0	-7.6	0.9	4.7	8.1
EBITDA 마진 (%)	14.2	0.9	11.8	13.5	14.8
ROIC	2.7	-7.3	2.5	6.6	10.0
ROA	0.7	-5.8	0.8	3.5	6.9
ROE	**1.5**	**-12.0**	**1.5**	**6.5**	**11.3**
부채비율 (%)	118.7	97.2	89.5	75.8	53.4
순차입금/자기자본 (%)	74.8	74.5	71.4	48.8	33.4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1	-3.0	1.2	2.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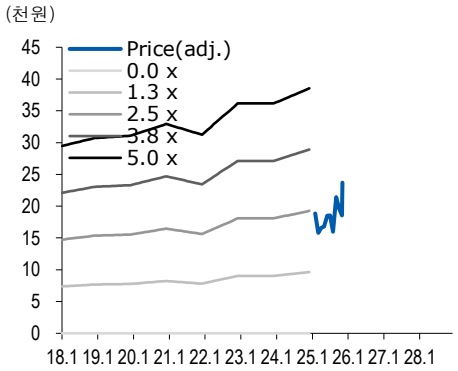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ROA의경우, 자본,자산 항목은 연초,연말 평균을 기준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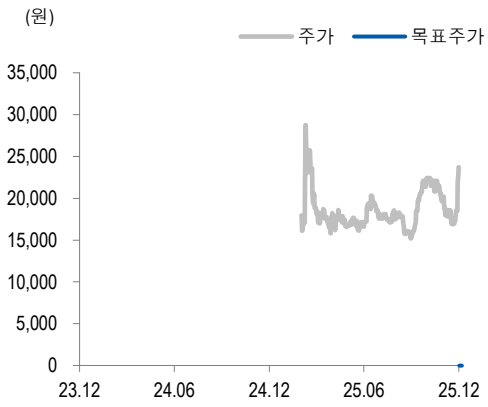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삼양엔씨켐 (4826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2-0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2
Hold(중립)	5.8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2-03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